# 전주시 탄소융복합 기회발전특구 '힘찬 출발'

## '전주시 탄소융복합 기회발전특구 컨퍼런스' 개최… 특구 지정으로 투자 8072억 · 고용 2233명 '기대'

26일 더메이호텔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 양오봉 전북대학교 총장, 박병철 한국노총 전주시지부 의장, 최송주 효성첨단소재 전무 등 기회발전특구 탄소협약기업 7개사를 포함한 30개 노·사·민·정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시 탄소융복합 기회발전특구 컨퍼런스'가 열렸다.

전주시가 지방의 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가운데 강한 경제 전주의 대변혁을 앞당길 특구의 힘찬 출발을 알리는 자리가 마련됐다.

시는 26일 더메이호텔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 양오봉 전북대학교 총장, 박병철 한국노총 전주시지부 의장, 최송주 효성첨단소재 전무 등 기회발전특구 탄소협약기업 7개사를 포함한 30개 노·사·민·정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시 탄소융복합 기회발전특구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대규모 투자환경과 양질의 일자리가 마련된 전주시가 '전주시 탄소융복합 기회발전특구'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며, 특히 그동안 추진해온 전주형 일자리 협약기관이 모두 참여하고, 전주형 일자리 10개 참여기업의 투자 부지가 기회발전특구에 모두 포함돼 전주형 일자리 사업이 기회발전특구로 확대·재편돼 본격 추진된다.

이날 컨퍼런스는 △기회발전특구 경과보고 △노·사·민 대표 4인의 소감발표 △업무 이행 협약식 △비전공유의 장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이날 협약식에서 시와 전주시의회, 전북대학교, 한국노총 전주시지부, 효성첨단소재 등 기회발전특구 탄소협약기업 7개 등 30개 노·사·민·정 대표는 △기 체결된 투자와 고용 성실히 이행 △탄소소재국가산단의 원활한 입주를 위한 고용, 노동, 행정 등 원스톱서비스 행정지원 △혁신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신사업 공동 발굴 및 교류 협력사업 추진 등을 골자로 한 업무이행 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전주가 글로벌 탄소소재산업 거점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합의와 기업의 투자를 촉진시켜 지역 경제 활력 회복의 구심점이 되고, 향후 탄소소재국가산단 유망기업 유치를 통한 탄소융복합 일자리 확대로 투자 활성화 등 산업 대변혁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협약식에 이어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갖는 의미와 비전을 공유하는 '비전 공유의 장'도 마련됐다. '비전 공유의 장'은 △기회발전특구 향후 과제 △산업단지 추진방향등을 주제로 한 발표에 이어 질의응답 시간으로 꾸며졌다.

이 자리에서 발표자로 나선 송기정 캠틱종합기술원 본부장은 탄소융복합산업 세계적 클러스터화를 위해 △탄소융복합 중핵기업 유치 및 육성 등 기술사업화등 탄소융복합산업 생태계 고도화 방안을 과제로 제시했다.

시는 오는 2026년까지 1단계로 기존 10개 참여기업을 시작으로 오는 2028년 탄소소재국가산단 입주기업을 포함해 총 3단계가 완료되면 탄소융복합 밸류체인 연결로 투자 8,072억 원과 고용 2,233명 등 대규모 경제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총 225만㎡ 규모 신규 산단 조성을 위해 '신규 일반산업단지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해 전주 신산업을 이끌 핵심 산업단지를 확보하고,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를 통해 노후화된 산단을 디지털 대전환 혁신기지로 탈바꿈시킨다는 구상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계기로 우수기업을 유치해 탄소융복합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새 기반을 마련하고, 세계적인 탄소융복합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해 지역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강조했다.

/김옥기 기자

# '등굣길 학교 폭력 예방캠페인' 실시

## 전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오송초 학생들과 홍보활동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정혜선)는 26일 전주오송초등학교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등굣길 학교 폭력 예방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학교 폭력 예방캠페인은 학교와 교실 등에서 발생하는 따돌림 및 학교 폭력 문제를 예방함으로써 건강하고 바람직한 청소년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전주오송초등학교 또래 상담자 연합회 학생 13명과 덕진경찰서 학교 전담 경찰관들이 함께 참여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8시 20분부터 약 40분 동안 학생들의 등교시간을 이용해 학교 진입로 앞에서 학교 폭력 예방과 1388 청소년 전화 홍보, 위기청소년 발굴·연계를 위한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쳤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전화(063-227-1005)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옥기 기자

# 전주월드컵골프장, 고품격 골프장으로 변신

## '더 빛나게 프로젝트' 추진

전주월드컵골프장이 고품격 골프장으로 거듭나기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26일 전주시설공단(이사장 구대식)에 따르면 '더 빛나게 프로젝트'는 △더 빛나는 미소 △더 빛나는 잔디 △더 빛나는 안전 △더 빛나는 품격 등 4갈래로 추진되며, '세세한 것'까지 '세심하게' 챙겨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 걸 골자로 한다.

구대식 이사장은 "고품격 서비스를 원하는 고객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세세한 것 하나까지 세심하고 살뜰히 챙겨 실질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여 나가는 게 이번 프로젝트의 목표"라며 "우수한 접근성을 바탕으로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해 도심 속 명품 골프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 전주시에너지센터, 건물부문 탄소중립 확산 '앞장'

## 한국환경공단 전북환경본부 · 그린리모델링 전라권 플랫폼과 협약

전주시에너지센터는 26일 최우순 센터장과 김상진 센터장, 송병선 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건물 부문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건물의 에너지성능 진단 및 효율화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주시에너지센터(센터장 최우순)가 건물의 에너지성능 진단을 통한 탄소중립 확산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전주시에너지센터(이하 센터)는 26일 최우순 센터장과 김상진 그린리모델링 전라권 대표기관 전주대 플랫폼센터장, 송병선 한국환경공단 전북환경본부 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건물 부문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건물의 에너지성능 진단 및 효율화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건물의 에너지 이용 실태 및 손실요인 파악을 위한 에너지 성능 진단 △에너지 절감 및 효율화를 위한 최적의 개선 방안 제안 등이다.

이날 협약에 따라 센터와 그린리모델링 전라권 전주대 플랫폼은 오는 28일 한국환경공단 전북환경본부 건물 전체의 건축 요소(단열, 창호현황)와 설비 요소(냉·난방기, 급탕기, 조명등)를 파악하는 건물에너지 현장 진단을 실시한다.

/김옥기 기자

# 전주시, '2024년 2분기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 재난 · 안보 상황시 기관간 공유 및 지원 협조 약속

전주시는 26일 시청 8층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군인·경찰·소방 등 통합 방위 관련 주요 기관장과 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2분기 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했다.

통합방위협의회 위원들은 최근 북한의 오물 풍선 투척과 GPS 전파교란 등 다양한 위협과 관련해 상황별 조치와 기관별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에 대해 논의했다.

또 비상시 위기관리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최근 고조되고 있는 안보 위기와 각종 재난 등의 비상 상황에 대비해 위기관리를 위한 통합방위태세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유관기관 간 소통과 유기적인 협조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이날 통합방위위원들은 '2023 지역안전지수 평가'에서 상위등급을 받은 전주시의 '2024년 안전관리계획'을 공유하고, 예기치 못한 재난 상황 발생시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최근 도내에서 발생한 지진 등 예기치 않은 재난과 불안한 안보 환경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확고한 통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지역 안보태세를 면밀하게 점검해 나갈 것"이라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언제나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 전주 북부권 에코시티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 리모델링 후 9월부터 전환 · 운영

전주시 북부권에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국공립어린이집이 확충된다.

시는 26일 포레나 전주에코시티(덕진구 세병로 21)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선정된 수탁자와 위탁관리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전주지역에서 운영되는 국공립어린이집은 42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시는 이날 협약에 이어 오는 8월 말까지 총사업비 1억 1000만원을 투입해 어린이집 리모델링을 완료한 후 오는 9월부터는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운영할 예정이다.

시는 앞으로도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의무 설치뿐만 아니라, 장기 임차를 통한 국공립 전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부모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김옥기 기자

전북의 역사 · 문화 유산

# 옛 전북의 구심점

##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 · 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정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견인차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선화당

###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층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관풍각

내아